



**특집** \_ “176개국 700만 재외동포는 경제성장과 통일의 역군” 동포재단 13개 대학 67개 고교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화제** \_ 국제적으로 관심 커진 평화의 섬 독도 세계가 한목소리 ‘독도는 한국 땅’



# 삼한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 영혼의 승천과 안식 기원

**오**리 모양 토기(압형 토기·鴨形土器)는 오리 모양을 닮은 일종의 상형 토기로서 넓은 의미에서 새 모양 토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형 토기는 인물이나 특정한 물건을 본떠 만든 토기를 말하는데 외형은 실물을 모방했지만 내부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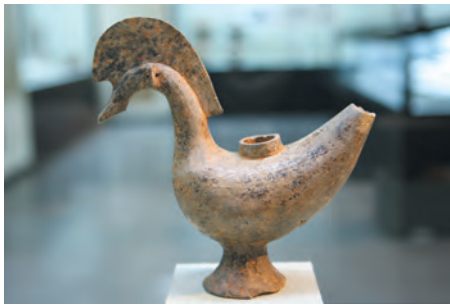
상형 토기는 속이 비어 있어 잔이나 주전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상형 토기는 형태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상생활보다는 의례 등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죽은 사람의 안식과 영혼의 승천과 같이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 기원을 표현해 주로 장례와 같은 의례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데 사용

된 후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새는 예로부터 곡식을 몰아다 주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오고 하늘의 신과 땅의 주술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인식됐다. 특히 오리는 인간이 넘나들 수 없는 물을 건너 땅과 하늘의 세계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오리 모양 토기는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특수 용기로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던 새에 대한 신앙이 표현된 유물이다.

토기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리 모양 토기도 점차 단단한 도질 토기로 제작되기 시작하며 그 형태도 변화됐다. 또한 눈이나 코의 표현도 점이나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날개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많다.

시기에 따라서 제작 방식과 세부 표현은 변했지만 오리 모양 토기가 갖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의례용으로 사용되던 기능적인 측면은 시기가 달라져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장**



울산 하대 유적 46호분에서 출토된 삼한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경북 경산 조영동 고분에서 출토된 오리 모양 토기



###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02** 한국의 얼      삼한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  
영혼의 승천과 안식 기원
- 04** 특집            “176개국 700만 재외동포는 경제성장과 통일의 역군”  
동포재단 13개 대학 67개 교역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 06** 동포 소식      재외동포 한인 검사 65명, 서울서 반부패 수사 논의 외
- 09** 동포 캘린더    재일민단, 동포 차세대가 모국 배우는 서머스쿨 연다 외
- 10** 기획            검은 대륙의 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인사회  
한류 여파로 드높아진 한인 위상
- 12** 화제            국제적으로 관심 커진 평화의 섬 독도  
세계가 한목소리 ‘독도는 한국 땅’
- 14** 글로벌 코리아    호주 워홀러 돕는 강병원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  
경주 세계한상대회장 된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그룹 회장  
허성철 미주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 16** 지구촌 통신원    카이로서 한국·이집트 수교 20주년 축하 행사  
상호 협력으로 양국 관계 발전
- 17** 동포정책 Q&A    재미동포 관심 큰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한미 간 계좌 정보 정례 교환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19** 동포의 창       이민자들의 고향은 태평양  
김운선 \_ 제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수상
- 20** 동포문학       모고(Mogo)에서 가져온 바람 소리를 걸다  
유금란 \_ 호주 \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 22** OKF 뉴스       한인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독일서 포럼 개최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불암마을 숯불 장어구이  
장어와 장아찌의 환상적인 궁합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76개국 700만 재외동포는 경제성장과 통일의 역군”

# 동포재단 13개 대학 67개 고교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19세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13일 오후 인천시 인하대학교 하이테크센터 대강당에서 3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 특강에 나섰다.

조 이사장은 강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에게 “150년 전 대규모 흉년으로 간도·연해주로 이주한 것이 재외동포의 첫 역사”라며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이 사는 미국·중국에서부터 10명 이내로 사는 미크로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76개국으로 뿔어나갔다”고 이민의 역사를 알렸다.

### “이승만·반기문·조수미·류현진은 모두 재외동포”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친 조 이사장은 재외동포가 모국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재외동포는 일본에서 차별받고 살면서도 한국전쟁 때 목숨을 걸고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을 비롯해 구로공단 투자 등 산업화 주도, 제주 감귤 보급, 88년 서울올림픽 후원, 신한은행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국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 고국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재미동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지금은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재중동포, 파독 광부·간호사로 70년대 외화 벌이에 이바지한 재독동포 등 직간접적으로 받은 도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독립운동가 안창호에서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소프라노 조수미,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 뉴질랜드 국회의원 멜리사 리, 프로야구의 류현진·추신수 선수, 프로축구 기성용 등이 모두 재외동포라는 사실에 학생들은 놀라워했다.

조 이사장은 “친정이 잘살아야 머느리 어깨가 퍼지는 것처럼 해외 어느 곳에서 살아도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애착심이 크다”며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세계인의 지지 여론 형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재외동포”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에 재외동포는 공공외교의 자산입니다. 물질·인적 교류와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정부도 재외동포 간, 재외동포와 모국 간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국정 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재외동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정치외교학과 4학년 차형민 씨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 700만 명의 우군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마음 든든해졌다”며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라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털어놓았다.

“통일을 그쳐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회의를 품어왔다”는 이현민(공간정보학과 4년) 씨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징검다리가 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에 가슴이



1



2



뛰었다”면서 “그동안 재외동포에 관해 무지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제 좀 더 공부해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해양과학과 3학년 배운경 씨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한·중·일 관계가 역사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며 “양국의 문화를 잘 아는 재중·재일동포를 통해 3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반가워했다.

강의를 마련한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포 이해교육 강좌를 열기 전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외동포를 접해본 학생은 10%에 불과한데다 조선족 범죄 사건 등으로 동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으나 강연을 듣고 나면 동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국에 기여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 모국과 동포사회 상호 ‘원-원’ 강조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규형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 임직원과 자문위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사회 현황, 재외동포재단 소개, 재외동포의 미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특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해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울시 상계고와 의왕시 의왕고 등 고등학교 67개교, 서울대·고려대·인하대·전남대 등 13개 대학, 미국 UC리버사이드에서 특강과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1.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강사로 나선 이준선 전 대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신흥고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2.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재단 임직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동포사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김채영 조사연구부 부장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3.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3일 오후 인천시 인하대학교 하이테크센터 대강당에서 3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 특강’을 펼쳤다.

## 재외동포 한인 검사 65명, 서울서 반부패 수사 논의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검사 65명이 수사 기법 등을 논의하는 한인검사협회(KPA) 총회가 5월 21,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7개국의 재외동포 검사 65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수사 시스템과 과학 수사 기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성범죄 처벌, 검사 윤리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진행됐다.

준 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며 검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조했다. 기업 범죄 수사 등을 많이 담당했던 그는 수사 과정에서 뒷선으로부터 '외압' 같은 것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인검사협회 서울 총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검사 평가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검사가 변호사를 만족시키는 직업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마크 김 LA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은 판사 비위를 별도 기관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변호사, 판사, 시민으로 구성된 이 기관에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경고부터 파면까지 단계별로 제재가 가해진다. 성희롱 사건처럼 중

한 사건은 판사의 실명과 비위 사실을 문서로 공개하고, 언론에도 그대로 실린다. 그는 "미국에 한인 판사가 15명 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후배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본군 위안부 · 홀로코스트 생존 할머니들 치유의 만남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당시 살아남았던 할머니들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4월 30일 미국 뉴저지 주(州) 해컨색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치유를 기원하는 야외 예술 행사가 펼쳐졌다.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88) 할머니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애니타 와이즈보드(92), 에델 켈츠(92)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재미 예술인들에 의한 무용 등 행위 예술 공연이 열렸다. 이 할머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지켜보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와이즈보드와 켈츠 할머니는 각각 오스트리아



재미 무용가 이송희 씨가 '진혼무'를 추고 있다.

와 폴란드에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버겐카운티 기림비는 카운티 법원 앞에 지난 2013년 세워졌다. 재미 미술가 신윤주 씨가 2년 전부터 제작한 대형 조각보로 법원 앞 잔디밭을 덮자 재미 무용가인 이송희 씨가 한복 차림으로 나와 위안부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존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진혼무'를

쳤다.

이날 행사에는 재미 시민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관계자, 버겐카운티 관계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비무장지대(DMZ) 횡단을 추진하던 여성 운동가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카자흐 고려인 동포, 고선지 장군 생애 연극으로 첫선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 충사령관까지 오른 고선지 장군의 생애를 다룬 연극이 고려인 동포들에 의해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로 구성된 고려극단은 5월 16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에서 연극 '장군 고선지'를 초연했다.

배우들은 서투른 한국어지만 고선지 장군의 고뇌와 시대적 배경을 담으려 애썼다. 공연을 지켜본 200명의 고려인과 현지인들은 이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류보피 리 고려극장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작품이며 고려인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고국이 어딘지를 잊지 않고자 마련한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극 '장군 고선지'를 열연하고 있다.

이 작품을 위해 30여 명의 고려극단 단원들이 6개월간 쉬 없이 땀을 쏟았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단원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어 발음이 서툴다며 아쉬워했다.

극본을 집필한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최지영 한국어과 교수는 "고구려인이었지만 당나라 장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고선지 장군의 삶을 통해 지금 고려인의 애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필하는 동안 한국인도 카자흐인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온 고려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서인 구당서는 고선지가 "한 번의 전쟁으로 72개국을 굴복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 재외동포들 연예인과 함께 국군 부대 방문해 위문 공연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이 연예인과 함께 국군 부대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펼쳤다. '민리민안(民利民安) 국민연합 해외동포협의회' (회장 김명찬)는 5월 26일 강원도 양구 모 부대에서 1천500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노고를 위로했다.

'국민 MC' 허참이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에픽코리아의 타악 연주 '난타'가 장식했다. 이어 뉴아시아 오페라단 소프라노 조영희와 테너 홍지형이 팝송과 가곡을 선사했다. '포기하지 마'의 가수 성진우, 걸 그룹 HA&DA(하서&다빈), 댄스그룹 메리트가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군통령'으로 불리는 섹시 트로트 가수 지원이가 피날레를 장식해 군 장병의 환호를 받



해외동포협의회는 강원도 모 부대에서 위문 공연을 펼쳤다.

았다.

해외동포협의회는 공연에 앞서 장병과 함께하는 오찬에 참여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공연을 마친 뒤에는 최전방 OP와 땅굴 등을 견학하며 엄중한 분단의 현실을 체험했다.

미국과 태국 등 15개국의 한인단체장들은 올 초 미국 버지니아상공회의소 회장인 김명찬 씨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해외동포협의회를 결성했다.

모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해외동포협의회는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불우이웃돕기 '연탄 나눔' 활동을 벌였다. 협의회는 아시아연합회를 비롯해 6대주 8개 총연합회와 45개국 지부에 6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호주서 12년째 청소 봉사로 환경·화합 기여하는 재외동포

호주 시드니 동포들이 환경운동 봉사단체를 만들어 만 12년 동안 매일 청소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호주 동포 환경운동 단체인 진우회는 2003년 5월부터 매일 한 차례 모여 청소를 해왔으며 5월 16일에도 시드니 파라마타 강변의 메도뱅크 공원 주변에서 약 40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해변과 그 주변의 나무 사이를 오가며 플라스틱 병이나 타이어 등을 모았고, 준비한 30개의 자루에는 금방 쓰레기가 가득 찼다.

매월 회비 10호주달러(약 9천 원)를 내는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호주 동포 봉사단체인 진우회 회원들이 청소 봉사를 마친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마치기 전에는 네팔 지진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즉석 모금도 했다. 진우회는 초기에는 관광 명소인 블루마운틴 등 시드니 주변 곳곳을 누비다 약 10년 전부터는 '시드니의 젓줄'과 같은 파라마타 강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우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에 호주 환경단체의 회원으로 등록, 매일 활동 보고를 하는 등 모임도 체계화했다. 자신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원이 요청하는 한인단체들이 생기고, 더불어 청소 봉사활동이 시드니 시내 등으로 확산하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파라마타 의회 등 지자체에서도 여러 차례 상을 주며 격려하는 것은 물론 매월 수거용 대형 자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이민 1.5세대, 한인 최초 LA 시의원 당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인 최초의 시의원이 탄생했다. 5월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LA 제4지구 시의원 결선투표 결과 이민 1.5세대인 데이비드 류(39) 후보가 1만 1천200여 표(53.85%)를 얻어 경쟁자인 캐럴린 램지 후보를 1천600여 표 차로 제쳤다.

4지구는 LA에서 로스 팰리츠, 행콕 파크, 셔먼 오크스 등을 포함하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약 1만 3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 의원이 탄생한 것은 165년 LA 시의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쾌거다. 아시아인으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13지구 시의원을 지낸 마이클 우에 이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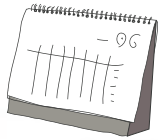


데이비드 류 씨가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내가 아시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드디어 LA시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 당선인은 1980년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5세대로 인종,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명문대인 LA 캘리포니아대(UCLA)에 진학했다고 현지 언론은 소개했다.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서 사회 활동가로 나섰고, 이반 버크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군수)의 보좌관으로서 정치수업을 받았다. 현재 류 당선인은 LA에서 가장 큰 비영리 보건센터인 케드런 정신병원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황**





## 재일민단, 동포 차세대가 모국 배우는 서머스쿨 연다

재일동포 차세대가 모국 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는 '2015 차세대 서머스쿨'이 열린다. 재일본대한국민단(단장 오공태)이 재일동포 차세대 육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번 서머스쿨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학생을 시작으로 고교생(8.4~7), 대학생(8.9~12) 순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다. 각 100명의 참가자는 역사 강연, 한국 문화 체험, 서울 시내 탐방, 지방 산업 시찰 등에 참여해 모국을 배우고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 광복 70주년 맞아 각국 동포 합창단 합동 무대 꾸며

국립합창단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해외 한인 합창단을 초청, 8월 15~17일 모국에서 기량을 선보이는 '한민족 합창 축제'를 연다. 행사에는 뉴욕 한인합창단(미국), 남가주 연세 콰이어(미국), 캘거리 한인합창단(캐나다), 브라질 한인 여성 어머니합창단(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울림합창단(아르헨티나), 프랑크푸르트 한인합창단(독일), 하노이 한인 여성&어린이합창단(베트남), 조선족 향일가요 합창단(중국), 상하이 한인합창단(중국), 카자흐스탄 한인합창단(카자흐스탄) 등 7개국 10개 합창단이 참가한다.



## 일본군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오', 전자책으로 배포

한국 정부가 최초로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오'의 영문판 배포를 주관하는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박물관' (www.ushmocw.org)은 한국의 정보기술(IT) 벤처 사회적 기업인 스마트한의 도움을 받아 '들리나오'를 전자책 형태로 펴내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전자책은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읽어볼 수 있다. 박물관 측은 6월 한글판과 영문판 2종류로 제작되는 전자책 발간을 계기로 현지인과 동포들이 구술집을 접할 기회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 '강제징용'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관 건립 시동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숨지거나 일본 패전 이후에도 신산한 삶을 살아온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월 14일 설립된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 사업회'는 사할린 현지에 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모금 운동을 벌인다. 사업회는 6월 15일 사할린에 한인 합동 추모비를 제막한 뒤 8월에 한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10월 말에 무연고 희생자 위패를 모신 추모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 7월에 학술대회 개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7월 20~25일 해외 초·중·고교와 대학의 한국어 교사와 교수, 조선족·민족학교 교사 등 100여 명을 선발해 '2015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한글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대회는 '아름다운 우리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란 주제 아래 한국어 교육 포럼, 교수법 강좌, 한국 문화 체험, 그룹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ka.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차세대 한상 육성 산실' 월드옥타 무역스쿨 열린다

재외동포 경제 리더를 양성하는 산실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차세대 무역스쿨이 6월부터 3개월 동안 세계 23개 도시에서 열린다. 무역스쿨은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편 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수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을 발굴해 한민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육성·활용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지 재외동포 1.5~5세대를 대상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검은 대륙의 끝,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사회

# 한류 여파로 드높아진 한인 위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인사회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남아공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흑인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펼치던 백인 정권이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동포 1호로 알려진 유필영(1942년생) 씨는 1977년에 국제상사 지사장으로 남아공에 입국했다. 당시 연 300만 달러어치의 신발을 수출했는데 주로 운동화류였다. 모리셔스의 사탕수수밭에서 필요한 장화도 많이 팔았다. 1985년에 국제상사가 한일합점으로 넘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독립한 유 씨는 한국으로부터 동물 사료

로 쓰이는 라이신 등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업으로 업종을 바꿔 변신에 성공했다.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유엔의 대 남아공 금수 조치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1985년 들어서 대우가 지사를 개설했고 1987년 비자 발행이 완화돼 소수의 한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1년경에는 남아공의 동포 수가 250명 정도였다. 대부분이 인근 나라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이었다. 1991년 추석 때 한인회의 구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 1992년 2월에 한인회의 첫 모임이 열렸



1. 요하네스버그 한국 식당에서 어버이날 축하 행사가 열려 동포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2. 프리토리아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인 및 현지인 대학생 20여 명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3. 2013년 11월 30일 케이프타운 해변의 야외극장에서 현지인들이 '케이팝 댄스,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해 현지인, 외국인 관광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다. 초대 회장으로 유필영 씨를 선출했다. 이곳의 한인회는 남아공 한인회가 아닌 요하네스버그 한인회라 칭했다. 당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100여 명이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회와는 별도로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1995년 2월 24일 프리토리아 한인회 발기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동포들의 직업은 신발 소매업, 사진 현상업, 여행사, 제조업, 주유소, 식당 등으로 다양했다.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는 1992년 1월에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국어, 역사, 사회, 음악, 윤리 과목을 공부했다. 프리토리아 한글학교는 1995년 2월 4일 개교했다. 처음 17명의 학생이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에 배정돼 국어, 사회, 국사, 한문, 음악 등을 배웠다.

1992년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되면서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프리토리아, 더반 등에 상주하는 한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서 집계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남아공에 거주하는 한인은 2013년 현재 4천240명이다. 2007년 3천480명이던 한인 수는 2009년 3천949명, 2011년 4천18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 동포 수 증가와 함께 위상도 달라져

요하네스버그 한인회는 1994년 12월 제1회 '한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동포들은 축구, 테니스, 피구, 줄다리기, 달리기, 바자, 노래 자랑 등으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참가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2년 9월 24일 남아공한인회 주최로 2012년 한가위 잔치마당이 열렸다. 운동 경기와 장기 자랑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등지에 거주하는 동포 500여 명이 참가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남아공에서 노래 '강남 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고 현대·기아 차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자리한 세계적인 관광지 케이프타운의 해변에서는 남아공 현지 한류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같고 님은 케이팝 댄스 솜씨를 뽐내는 '케이프타운 한류 케이팝 댄스,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

후 3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축제에서는 동호회장인 백인 여성 로웨나 매케이(32) 씨가 이끄는 동호회원과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찾아온 케이팝 팬이 한테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수백 명의 관객이 지르는 함성에 해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기웃거리며 카메라를 꺼내 드는가 하면 박자에 맞춰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 현장이 온통 한류로 달궈졌다.

2014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프리토리아에 있는 오픈 윈도즈 영화학교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현지인과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영화와 음식 축제'가 열렸다. 첫날 열린 개막식과 영화 7편 방의 선물 상영에는 예상했던 인원의 두 배가 넘는 5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준비한 음식이 동날 정도였다.

이 행사는 일방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홍보의 자리가 아니라, 기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현지 남아공 영화계 인사와 영화를 공부하는 오픈 윈도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화제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 제작을 교수와 학생이 도맡아 했을 뿐 아니라, 영화 예고편과 같은 홍보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만들기도 했다.

한인 이민 역사는 짧지만 동포 수의 증가와 함께 남아공 한인 사회의 위상도 크게 달라진 셈이다. **창**

4.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아공 병사가 가뭄 때 물을 퍼 올리는 수차를 밟으며 웃고 있다.

5. 2014년 10월 2일 동포와 남아공 한국전 참전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행사가 열려 한국을 알리고 우의를 다졌다.

6. 프리토리아 빈민촌 마멜로디에서 2012년 12월 21일 한인들이 성탄절 선물을 나눠준 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심 커진 평화의 섬 독도

# 세계가 한목소리 '독도는 한국 땅'



1

(사)동북아평화연대는 대한요트협회와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5월 17일 독도에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참가 임원·선수단, 울릉·독도 주민, 외국인, 재외동포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의 섬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요트협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제8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와 연계해 열린 특별 행사다.

행사에는 유라시아의 고려인 동포 10여 명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조선족 동포, 북한 이탈주민 등이 참석했다. 고려인 참가자 중에는 지난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에 도착했던 자동차 랠리 팀의 일원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선포식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와 한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선언문 낭독, 평화 마크 만들기, 풍선 날리기 등을 진행했다.

동해와 독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북 울진군 후포항을 출발해 독도를 돌아 다시 후포항으로 돌아오는 '독도 레이스'를 펼쳤다. 직선거리 460km, 항해 거리 1천km에 달하는





2



3

장거리 경주로 향해 시간은 2박3일에 걸친 최장 60시간이다. 18개국에서 온 262명이 34척의 요트를 끌고 출전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후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세계인이 한목소리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5월 14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회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는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과거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대신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어린이들을 포함한 세계 어린이들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일본 역사 교과서도 진실을 기록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5월 19일 미국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독도가 지금까지 한국 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자 참석한 한인 100여 명은 일제히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대구MBC가 만든 3D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독도’가 4월 18일 열린 제48회 미국 휴스턴 국제 필름페스티벌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다. 심사단은 이 프로그램을 ‘독도라는 바위섬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휴스턴 필름페스티벌은 캐나다 반프 TV페스티벌, 뉴욕 TV페스티벌 등과 함께 북미 지역에서 손꼽히는 영상 분야 국제 행사다. 대구MBC는 2013년 한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국내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독도 비경을 초고화질(UHD) 3D 입체영상으로 구현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셔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5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나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한국은 일본의 최종적 제안으로 수용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는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를 구축해 PC와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도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 총 12개 언어로 구축돼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언어로 된 독도 홍보 영상을 지난해 10월 제작 완료해 관련 홈페이지 등에 탑재한 상태다. **창**



4



5

1. 5월 7일 독도 탐방 행사에 참여한 경북도 내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60명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받았다.
2.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3.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4. 5월 9일 칠레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독도 서포터스 모임이 독도 주제 플래시몹 공연을 하고 있다.
5. KT가 5월 24일 재난·재해 등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통신이 가능한 위성 LTE를 독도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 GLOBAL KOREAN

## 호주 워홀러 돕는 강흥원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 낮선 타국 생활 격려 지원



호주 워홀러·유학생 돕는 강흥원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단기 체류하는 한인 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09년에 4만여 명에 육박했으나 살인 사건 등이 잇따르며 지난해 1만 9천여 명으로 줄었다.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식당·숙박·마트 등 한인 상권이 위축된 것은 당연한 일.

강흥원(54)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한국인 참가자(워홀러) 등 단기 체류 한인 청년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에 상공인회 초청으로 '워홀러 초청 야유회 겸 송년회'를 열었고, 올해부터는 장학생 범위를 동포 자녀에서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해 4월 16일 성적 우수자 5명에게 장학금도 수여했다.

강 회장은 "시드니 본부와 퀸즐랜드, 빅토리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오스트

레일리아, 캔버라 지회의 각 사무국에서 상시로 워홀러나 유학생을 위한 상담과 안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홀러와 유학생을 만날 때마다 '안전 의식 강화'를 강조한다.

"비교적 치안이 좋다는 호주지만 현지인은 밤이나 새벽에 거의 외출을 안 합니다. 워홀러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한국에서처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다니기도 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먼저 익히라고 충고합니다."

강 회장은 "동포 1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뿌리를 내렸고 기반을 다졌다"며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상공인회를 중심으로 워홀러·유학생과의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성철 미주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모국 기업 해외 진출 도움

"북미주 지역 3만 5천여 개 회원사 매장에 불고기, 김치, 김, 라면, 스낵 등 한국 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식품이 차지하던 자리였죠."

허성철(63)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KAGRO) 회장은 미국, 캐나다의 29개 지역협의회 내 회원 3만 5천여 명을 둔 북미주 최대의 한인 경제단체를 이끌

고 있다.

허 회장은 "회원사 전체 매출이 연간 200억 달러로 미주 지역 식품·주류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인 10명 중 1명은 한인 마트에서 식품을 사고 있는 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KAGRO는 2005년부터 한국 식품을 진열했고, 지금 매장에는 일본 식품은



몇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김밥, 불고기 등 한국 식품이 일본 제품을 밀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KAGRO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포항시, 속초시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향토 음식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식품업계에 허 회장은 ‘한국 식품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KAGRO는 북미주 주류사회에 26년 동안 비즈니스를 펼쳐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 식품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 부담 없

이 문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KAGRO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총회에서 재외동포 간 경제교류 강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조력, 미주 내 스몰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을 2015년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KAGRO는 1989년 회원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함께 성공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1992년 LA 폭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헌과 소통을 중시해 지역협의회별로 매년 백인, 흑인, 중남미 출신, 한인 중에서 고르게 장학생을 10~20명씩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허성철 미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 경주 세계한상대회장 된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그룹 회장 차세대 발굴과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한상(韓商)대회’의 대회장으로 송창근(55) 인도네시아 KMK글로벌포츠그룹(이하 KMK) 회장이 선출됐다.

송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4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연 제2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회장에 뽑혔다. 운영위원회에는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한창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 회장, 권병하 말레이시아 헤닉 권코퍼레이션 회장,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등 대표적인 한상 26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에는 2천2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약 10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세계 신발업계의 ‘큰손’인 송 회장은 1988년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단돈 300달러로 사업을 시작, 6개 계열사에 2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그룹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이다. KMK는 나이키, 컨버스, 헌터부츠 등 세계적인 브랜드 신발을 연간 3천만 켤레 생산해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 인턴십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도 돕고 있다.

송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한상대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사명감을 갖고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상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친 뒤 “차세대 한상 발굴·육성에도 힘쓰는 동시에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가교 역할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인도네시아 KMK그룹 송창근 회장

# 카이로서 한국·이집트 수교 20주년 축하 행사 상호 협력으로 양국 관계 발전

한상용 연합뉴스 카이로 특파원



한국·이집트 수교 20주년 행사에서 정광균 주이집트 한국 대사(가운데)가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한국과 이집트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인 동포와 이집트인 등이 어울리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은 5월 12일 저녁 카이로 시내 콘라도호텔에서 한인 동포, 이집트인, 미국·중국·일본 외교사절단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독도와 서울 풍경, 한국의 발전상 등을 알리는 한국 통일 사진전이 열렸다. 또 가야금 연주, 비보이 공연, 한식 시식 등도 진행됐다.

수교 기념 리셉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수교 20주년 축하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정광균 주이집트 한국 대사가 대독한 서한에서 양국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한 뒤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상호 교류가 더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칼리드 파흐미 환경장관이 대독한 서한을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상호 협력이 심화·지속한 것을 평가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관계의 폭넓은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집트는 1995년 4월 13일 수교했다. 이집트에서도 한류의 열기는 뜨겁다. 2014년 8월 21일 카이로 남부의 마야디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케이팝(K-POP) 페스티벌 경연대회는 관중 6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2014년 10월 29일에는 카이로에 아랍권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원했다.

한국문화원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작가 초청 세미나, 번역 교실, 전통 음악 연주, 태권도, 사물놀이, 한국 영화·드라마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 국민의 쌍방향 교류에 크게 기여했다. 다목적홀, 도서관, 세종학당, 한류 체험관, 한식 교실, 멀티미디어실 등의 시설을 갖춘 한국문화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은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카이로에서 한국 영화제, 한국 민화전, 한국 전래동화 번역 발표회, 한류 경연대회 등을 열었다. 또 올해 중 한국 인기 드라마의 이집트 국영방송 방영도 계획돼 있다. **▶**



2014년 8월 카이로 남부의 마야디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케이팝 페스티벌 경연대회에 관중 600여 명이 몰려 케이팝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 재미동포 관심 큰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 한미 간 계좌 정보 정례 교환



국세청은 2009년부터 매년 재미동포를 상대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 금융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 스위스, 케이맨군도, 바하마 등 약 70개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FATCA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융 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금융 계좌 정보를 추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5만 달러 초과 개인 금융 계좌, 25만 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로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 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 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FATCA가 제정된 뒤 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5월 7일 블룸버그 통신과 포브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4명에서 1천3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이다.

미국의 한 동포 언론은 IRS가 발표한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뒤 이를 바탕으로 “FAT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도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미동포들에게도 FATCA는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재미동포 중 5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한 경우 관련 계좌 정보를 한국의 은행들이 국세청을 통해 IRS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계좌 잔액 기준 시점은 지난해 7월 1일이다. FATCA는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금융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창**

### Q&A

####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의 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A주식을 10억 원(미화 약 100만 달러)에 취득하고 환율이 오른 뒤 같은 10억 원(미화 약 125만 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한국 세법에 따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해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 금액(100만 달러)과 양도 금액(125만 달러)의 차액 25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왼쪽).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를 차원 높게 격상하고 그에 걸맞은 호혜적 협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간 공동 가치와 비전을 갖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뿐으로, 이번 한·인도 관계 격상은 전략적 협력을 경제 분야에서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정상 상호 방문 또는 다자 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양국의 외교·국방(2+2) 간 차관회의 신설 ▲외교장관 공동위 연례 개최 ▲국가안보실 간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등에 합의했다. 또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 모색 ▲양국 조선소 간 국방 목적 협력 장려 ▲양국 해군 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 간 정례 상호 방문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인도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이종과세 방지 협정 개정, 한국 국가안보실 및 인도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전력부 간 전력 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 2건과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

# 이민자들의 고향은 태평양

김윤선 제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수상

시애틀 국제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마음은 늘 기쁨으로 설렌다. 공항에서 검색대를 지나 낮익은 한국의 항공회사가 있는 자리로 가면 어쩔 나를 닮은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다. 눈만 마주쳐도 절로 웃음이 났다.

활주로를 벗어나자마자 내 마음은 벌써 고국에 가 있다.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듯한 그리운 얼굴들과 산야들, 그리고 내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 곳, 고국은 어쩔 그리움 속에서 더욱 살찌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큰 숨을 들이쉬며 가슴 한쪽을 누르고 있던 바윗덩어리를 꺼내 슬며시 태평양 넓은 물속으로 던져 넣는다. 낯선 땅에서 사는 서러움이 어찌 나쁜이랴, '풍덩' 깊은 물소리를 내며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던 마음들을 이렇듯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고국을 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관대해지는 모양이다.

마중 나온 가족들에 에워싸여 일일이 포옹을 하고 나면 애야,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미국도 살 만하냐. 강 서방도 건강하고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전화로도 늘 묻는 말이지만 또다시 묻는다. 하기가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또 있을까. 이런저런 안부 전하기가 끝나면 스프르 빠져드는 졸음, 어머니의 젖내를 맡으며 긴장이 풀린 채 나는 단잠에 빠져든다. 얼마만의 달콤한 단잠인가.

애들아, 나 왔다. 어머, 언제 왔니? 만나자 로 시작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역시 이 맛이야! 를 외치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열주 이 주일이 지나면 웬만하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은 건 거의 다 먹는다.

이때쯤 도로는 복잡하고 공기는 오염이 심해 사라진 비염이 돌아오고,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교통질서는 어쩔 그렇게 무질서하냐. 날씨는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하루 입은 옷에 새까만 때가 잔뜩 끼는 건 또 웬일이래. 물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사람들은 어디에나 복잡대고.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남편은 때를 거르지나 않는

지. 냉장고 속에 넣어둔 음식은 한 번 더 끓여야 하는데, 잔디에 물은 잘 주고 있는지. 공과금의 수표는 날짜 맞춰 보내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태여 꼭 오지 않아도 됐는데 무슨 중요한 일인 양 호들갑을 떨었던 일이 슬슬 부끄러워진다.

은근히 이곳을 헐뜯으며 내 마음은 어느새 미국으로 향한다. 가족이 그림고 걱정된다. 은근히 말하는 그들을 밀친 마음이 편치 않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일상인데 왜 이렇게 조금함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사는 동안엔 자주 오너라. 엄마는 벌써 몇 번이나 다짐한다. 걱정마 엄마, 내가 얼굴 보여주는 것 말고 무슨 효도를 하겠어. 내년에 또 올게. 나는 그렇게 말로 선심을 쓴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하니 엄마가 끓여주신 추어탕, 더 많이 먹고 맛있었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어느새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다. 이것도 팔자인가 보다. 한국이 그리워서 달려가면 머잖아 미국이 걱정되고 미국에 오면 이내 또다시 한국이 그리운 걸 보면. 그래,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다 한 섭섭함과 그리움은 이곳에 묻자. 그리고 열심히 살자. 그게 그들을 위한 길임을. 내 가족이 기다리는 곳.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살맛 나는 일이나. 엄마가 싸준 고춧가루도 멀치도 나눠야겠지.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

시애틀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은 태평양을 고국이라 부른다. 한반도의 동해 바닷물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을 거라는 믿음이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띄운 그리움이 흘러 흘러서 한국으로 전해질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태평양을 고국이라 부르는 진정한 이유는 어쩔 한국으로 가는 동안 그간에 겪었던 이민의 서러움을 이곳에 묻어버리고 돌아오는 길엔 또 다른 회한과 그리움을 이곳에 담은 비밀의 방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하여 고국이 그리울 때는 제일 먼저 바닷가로 달려가 묻어 두었던 그리움을 꺼내 가슴을 채우기 때문이 아닐까. **창**



# 모고(Mogo)에서 가져온 바람 소리를 걸다

유금란 호주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시드니에서 승용차로 서너 시간 달려 만난 모고(mogo)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영국풍 오래된 건물들이 숲을 이룬 상가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타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온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애절한 소리에 홀려 따라가 멈춘 곳에 바람의 연주가 한창이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대나무 윈드차임이 상점 앞 베란다 처마 끝에 매달려 닿을 듯 말 듯 서로 어루만지며 노래를 만들고 있다.

한 놈 번쩍 들어 보쌘하듯 싸안아 계산대로 향했다. 상점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의 후예가 만든 작품이라고 머리가 하얀 백인 점원은 친절하게 설명한다.

지난해 가을, 한인봉사단체 게시판에 더보(Dubo)지역에 사는 애보리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오래전부터 버르던 일이었는데도 나는 마감일이 다 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마약과 술에 찌들어 폭력이 난무한다는 그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두려움도 컸지만 8박 9일이라는 일정이 부담스러웠다. 자원봉사가 선택이 아니고 생활의 일부인 이 사회에서 십수 년을 살면서도 무엇인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몸에 배지 않은 나에게 참 힘든 일이었다.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타민족보다 많이 저조한 민족으로 꼽히는 한국인들, 그런 한국인이 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선택일지는 모르나 주머니 사정을 뒤로하고 마지막 날 지원서를 냈다. 갑자기 변화된 내 삶이 버거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었는지 모른다.

준비과정은 나를 먼저 내려놓는 훈련들이었다. 애보리진의 역사와 습성, 현재 처한 상황들을 교육받으면서 들은 생각은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적어도 이들의 피 값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점이었다.

어디든 원주민의 역사는 가혹하지만 애보리진만큼 철저하게 삶의 터전과 문화를 빼앗긴 종족은 지구 상에 없다고 한다. 200년 전에 영국인들에 의해 거의 소멸 되다시피 했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애보리진은 유일하게 백인보다 유색인에게 호의적인 본토인이다. 한국인은 이들과 소통하기에 아주 좋은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고 강사들은

말한다. 피부색을 넘어 한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자 몇 개, 학용품 몇 점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와 울분, 무기력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나는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타일 팀과 사물놀이 팀을 선택했다. 타일 자르는 단순기술을 익히고 사물놀이 팀에 합류해 복채를 잡았다. 장고와 팽과리에 맞추어 굿거리, 삼채, 별달거리, 휘몰이 등의 장단을 익히면서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번 봉사의 주 임무는 누군가 희사한 낡은 집을 마을회관으로 고치는 작업을 돕는 일이었다.

우리는 더보 시내 중심에 있는 청소년 회관에 짐을 풀고 다음날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 타일을 자르고 페인트칠을 도왔다. 먼지 속에서 웃고 떠들면서 현직인들과도 어설피게나마 가까워졌다. 그때 만난 테런스 화이트란 친구는 우리 집 냉장고에 아직도 사진이 붙어 있다. 그의 꿈은 애보리진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공사현장에 나오는 현직인들은 생각이 깨어 있는 지성인에 속했다. 대부분 아예 관심이 없거나 남의 행사 보듯 쳐다보며 피해간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공사현장에서 작은 소요가 일었다. 밤에 현지 아이 둘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잠자리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와 시계를 가져간 것이다. 현장에서 당직 차 자던 일행은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을 알았지만,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가져가게 두었다고 한다. 그것을 지키려고 소란을 피우면 당장에 폭력을 쓸 것이고 우리 누군가 다치거나, 아이들이 바로 청소년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받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자기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참 안타까웠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중,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만남이 주선되었다. 오래전에 신청해 놓고 기다리던 청소년 교도소 방문이 내정자가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18세 이상 성인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급하게 사물놀이 팀 정비를 다시 해야만 했다. 우리 팀의 리더 격인 중 고등학생들이 빠지고 서너 명 남은 어른들로 팀을 새로 꾸리려니 혼란스러웠다.

공연은 한 번에 15명만 관람 가능하다는 교도소 측 규정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하기로 결정이 났다. 덩치가 산만한 경비원들이 빙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청소년 재소자들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일렬로 마주 앉았다. 마주하고 앉은 아이들은 경계와 적의에 찬 눈빛을 보내곤 반쯤 누운 자세로 자리를 잡았다. 눈을 감지 말고 복채나 장고 채를 놓쳐서는 안 되며, 만약 놓치더라도 절대 잡으려고 움직이지 말라는 철저한 경고가 있었다. 아무리 경비원들이 많지만 얼마 안 되는 이 거리를 아이들이 달려들면 어쩌나... 복채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숨이 멎을 듯

답답하고 두려웠다. 대부분 마약과 술을 마시고 폭력과 도둑질을 하다 들어온 아이들이다.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에 분노만 남고 절제를 잃은 아이들...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라 불리는 호주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로 부모들과 떨어져 백인 문화 속에서 키워진 세대의 후손들이었다. 무분별하게 문화가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탓에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이들이었다.

정부가 '쏘리(Sorry)' 정책의 하나로 이 아이들에게 던져 준 몇 푼의 보조금은 독 문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 셈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우리 순서는 두 번째, 늘 관중의 시선을 모으는 팀이었지만 닫힌 공간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눈빛을 받으며 바로 앞에서 마주 앉아 연주를 시작하려니 손이 떨려 복채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다. 팽과리의 시작 음이 떨어졌지만 머리가 하얘지면서 순서가 생각나지 않았다. 일단 눈을 감았다. 본능적으로 손만 움직였다.

숲과 초원에서 하늘을 향해 디저리두를 불던 그들의 태초의 마음을 상상했다. 노래와 점을 문자 삼아 자연을 찬미하고 마더랜드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실었을 그들의 몸짓들을 복채에 실어 풀며 내 장단이 그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언어가 되기를 소망했다.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면서 눈을 감지 말라던 경고가 생각났다. 퍼뜩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아이들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있었다. 그제야 표정이 보였다. 백인의 피를 받은 듯한 한 아이의 잘생긴 윤곽이 보였고, 눈동자에 언뜻 물기가 어리며 불손했던 눈길이 부드럽게 풀리는 다른 아이의 눈동자도 보였다. 며칠 전 밤에 공사현장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겹치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준비해간 선물들을 놓고 나오면서 손 한번 잡아 줄 순 없었지만 먼저 손을 흔들며 뒤돌아가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 높은 담 곁에 두고 왔다는 기쁨이 컸다.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친 생명으로 어수선한 뒷마당을 오랜만에 돌아본다. 모고를 다녀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바람결에 어느새 찬 기운이 실려 있다. 울여름은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나갔다. 하던 일도 힘에 겨워지는 나이인데 새로운 일을 급하게 물고 삼키려니 되새김질 또한 만만치 않다.

애보리진의 눈물이 노래가 되어 걸린 모고 마른 숲에서 가져온 바람 소리를 오늘에서야 뒷마당에 건다. 함께 가져온 글귀 하나가 바람결에 무심히 흩어진다.

Don't forget to live today...

우연도 지나고 나면 운명이 되듯 이 시간 나의 삶도 운명이 될 날을 믿는다.

애보리진의 울분이 먼 훗날 모고의 윈드차임에 실려 노래가 된 것처럼. **창**

## 한인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독일서 포럼 개최



5월 2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YBLN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한인 차세대 비즈니스리더 모임인 'YBLN(Young Business Leaders Forum · 회장 박원규) 프랑크푸르트 포럼'이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25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80여 명의 회원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유제현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김영훈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김두영 코트라 유럽지역 본부장, 고광희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상과 모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차세대 한상 활동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YBLN 특유의 진취적,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오전에 헛센무역투자공사가 프랑크푸르트 메세투룸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로텐베르거 사와 피혁가공사 피카아드 사를 방문 견학했다. 이어 28일부터는 포도생산지, 하

이델베르크 고성 등 중세와 근세 유적지를 돌아보고, 스위스 최고봉 알프스 웅프라우 등반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 조규형 이사장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격려



29일 열린 제1회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워싱턴지역 세미나에서는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워싱턴 지역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9일 세미나에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과 박제진 변호사 등 풀뿌리 운동 전문가들이 참석해 풀뿌리 운동의 성과와 현주소, 향후 전략 등을 소개했고 30일에는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방안을 모색했다.

조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는 200만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한층 신장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면서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

런스를 계기로 미주 한인사회가 스스로의 정치력을 신장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이사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는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영토와 영역을 넓히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면서 "이제는 시혜적 시각이 아니라 전략적 시각에서 동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한인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인들이 선거 때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통해 미 정치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좋은 재목(인재)이 선거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개최, 참가신청 접수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6~9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신청을 받는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 내외동포간 및 한인회장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인회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대회는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며 세계 한인의날 기념식, 재외동포정책 포럼, 정부간담회, 지역별 현안토론,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6일까지 각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

# 바른 말 고운 말

## 합방 / 합병

신문의 경제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 가운데 M&A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 보면 '기업 인수 합병(合併)'이라고 합니다. '합병'과 유사한 말로 '합방(合邦)'이 있습니다. 옥편을 찾아보면, '합방'의 '邦'은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고, '합병'의 '併'은 아우른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합방'과 '합병'에는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합방'은 둘 이상의 나라를 병합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병'이라는 말이 둘 이상의 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둘 이상의 나라를 합치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둘 이상의 나라를 합치는 것을 표현할 때는 '합방'과 '합병'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라 이외의 것을 둘 이상 합하는 경우에는 '합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 합병'은 할 수 있지만 '기업 합방'은 할 수 없는 것이죠.

## 방년 / 꽃나이

예로부터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에 해당하는 나이에 이르면 그 나이를 이르는 별칭을 따로 썼습니다.

40세를 가리켜서 '불혹'이라고 하고 50세는 하늘의 뜻을 알 나이가 됐다는 뜻으로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60세는 귀가 순해질 나이가 됐다고 해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흔히 20세를 약관(弱冠)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이라는 말은 남자 나이 20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자 나이 20세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은 없지만 20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를 방년(芳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년 19세'라든가 '방년 20세'와 같이 씁니다.

방년이라는 한자어와 비슷한 말로, 여자의 한창 젊고 꽃다운 나이를 뜻하는 '꽃나이'라는 우리 고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 오른쪽 방향 열쇠

2. 썰지 않고 잎사귀 그대로 말린 담배
4. 걸어서 보이는 모양의 상태
5.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게 된 탈것. 안장에 올라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교대로 밟아 체인으로 바퀴를 돌리게 돼 있다.
7. 소금을 탄 물
9.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11. 여객차나 화차를 끌고 다니는 철도 차량

14.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15. 동쪽·서쪽·남쪽·북쪽이라는 뜻으로, 모든 방향을 이르는 말
17. 서양에서 발생해 발달한 그림. 또는 서양에서 보급된 재료와 기술에 의해 그려진 그림
19. 명태의 새끼
21. 오미자나무의 열매. 기침과 갈증 또는 땀과 설사를 멎게 하는 데에 쓰인다.
23.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

#### ▶ 아래쪽 방향 열쇠

1.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잎사귀'의 방언, 잎의 모양새
3.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6. 전동기의 힘으로 레일 위를 달리는 차
7. 밥, 국, 서너 가지의 반찬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칸을 나누어 만든 식기
8.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9.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10. 걸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
12. 관서와 공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
13.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입은 각질이고 이가 없는 동물. 등과 배에 단단한 딱지가 있어 머리와 꼬리,

- 지느러미 모양의 네발을 그 안으로 움츠릴 수 있다.
14. 고려 말기에 정몽주가 지은 시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읊은 것으로,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해 지었다.
15. 어린이를 위해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예 작품
16. 체격이나 성질에서 남성만이 갖는 특유의 아름다움
18.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妃). 춤과 음악에 뛰어 나고 총명해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안녹산의 난 때 죽었다.
19. 한뼉잠. 사방이나 하늘을 가리지 않은 장소에서 잠을 잠
22.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띤 물체. 천연적으로는 자철석이 있고, 강철을 인공적으로 자기화해 만들기도 한다.

#### ▶ 5월호 정답

섬	섬	옥	수	낙	화	암
나		영	성			국
라	면	장	독	대	고	민
		도	망	사	한	약
		향	수	매	국	
	정	가	손	사	면	
마	찰	식	목	일	장	수
리		곤	요			라
아	짜	증	일	기		상



수로왕릉

김해 불암마을 숯불 장어구이

## 장어와 장아찌의 환상적인 공합



장어마을 전경

경남 김해에는 '동장군도 선암에는 못 들어간다' 는 말이 있다. 장어마을인 불암동(佛岩洞)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장어는 피로 제거나 원기 증진에도 좋지만 도라지, 생강 등을 넣고 달여 먹으면 겨울 추위에 끄떡없고,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불암동은 '선암(仙岩)마을' 로도 불리는데 옛날 마을 뒤편에 '부처바위' 가 있던 것에서 유래했다. 높이 2m의 암벽에 돌을새김한 고려 말~조선 초의 마애불이 있었는데 1972년 남해안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파괴됐다고 한다.

불암마을 일대는 과거 서낙동강의 황금 어장으로, 강에 그물을 던지면 자연산 장어를 비롯해 메기, 잉어, 가물치 등이 한가득 달려 나왔다. 30여 년 전 이곳에 장어구이집이 생겨난 것도 이런 강이 전한 풍요로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생겨난 장어구이집은 30여 곳에 이르렀고, 지역의 명물이 됐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상당히 큰 변화도 겪었다. 신항 배후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마을 일부가 철거되면서 기존 장어마을이 사라진 것이다. 김해시는 장어마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근에 부지를 조성했고, 깔끔하게 단장한 새로운 장어마을에는 현재 장어구이집 2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장어구이와 함께 식당마다 직접 마련한 10여 가지에 이르는 장아찌를 잘 구워진 장어와 함께 먹으면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자꾸만 손이 가게 한다.

지금은 비록 강에서 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아 호남 지방의 양식 장어를 사용하지만 이곳 장어 요리는 여전히 김해와 부산, 경남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한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후 숯불로 익혀낸 고소한 장어는 식당마다 손수 마련한 각종 장아찌와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전한다.

### 손맛 밴 장아찌의 개운함

이곳의 장어가 다른 지방의 장어와 다른 점은 우선 매콤한 양념에 있다. 양념 장어의 경우 고추장, 진간장, 생강, 마늘 등을 여러 시간 동안 푹 고아서 만든 양념을 장어에 발라 하루 동안 숙성시킨 후 구워 낸다. 숯불에 잘 구워진 양념장어의 알싸하면서도 깊은 맛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곳 장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장어가 아닌 식당마다 직접 마련한다는 밀반찬에 있다. 장어를 주문하면 큰상 하나로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밀반찬이 빼곡하게 올라온다. 김치류는 물론 가지, 콩나물, 도라지 등 각종 무침류, 단호박, 버섯구이, 문어 등 밀반찬이 20여 가지에 달한다.

특히 두릅, 방앗잎, 매실, 부추, 무, 케일, 마늘 등 8~10가지에 이르는 장아찌는 미각에 행복감마저 전해준다. 숯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장어를 장아찌와 함께 젓가락으로 집어 입 속에 넣으면 특별한 맛과 향이 미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장아찌의 종류에 따라 전해지는 각기 다른 식감은 자꾸만 장어와 다른 장아찌와의 조합을 맛보라고 부추긴다.

보통 장어는 한 마리만 먹어도 기름진 맛이 턱밑까지 오르는 포만감을 준다. 그러나 불암 장어마을을 찾은 이들은 장어 한 마리(1인분)에 만족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독특하면서 개운한 장아찌의 맛과 향 때문이다. **장**

### ▶ 수로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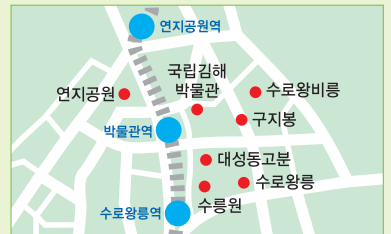
가락국(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재위 42~199)의 무덤이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 22m, 높이 5m 정도이다. 수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고 있다. 왕릉 구역 안에는 신위를 모신 송선전, 안향각, 제기고, 홍살문 등이 있다.

문의: 김해시청 문화과

055-330-7313

<http://tour.gimhae.go.kr>

### ▶ 김해 여행 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수로왕릉 → 수릉원 → 대성동고분 → 연지공원 → 국립김해박물관 → 구지봉 → 수로왕비릉

#### • 관련 웹사이트

김해 문화관광  
<http://tour.gimhae.go.kr>

#### • 대중교통

서울 강남터미널 → 김해(4시간 40분)  
KTX '구포역'에서 버스, 부산지하철 이용

#### • 식당 정보

불암정장어구이 055-336-6463  
국보장어구이 055-339-6969

# “한인 사회 모습 담은 사진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제3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인 사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재외동포 삶의 현장, 한인 사회 풍경, 거주국 현지인과 한인의 교류 활동 등을 주제로 동포가 직접 찍은 아날로그·디지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동포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 가운데 중남미 이민 역사, 광복 70주년 관련 역사 등을 담은 사진을 발굴, 대중에게 선보이는 ‘개인 소장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응모자는 7월 3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photo@okf.or.kr)이나 전화(02-3415-0146)로 문의할 수 있다.

##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도 공모한다.

재외동포와 관련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10장 안팎, 중·고생은 15장 안팎으로 3편 이내의 글을 써서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2편을 선정하며 대상에는 100만원 등의 장학금과 상패 외에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culture@okf.or.kr)이나 전화(02-3415-0183)로 문의할 수 있다.



## “재외동포 이야기 담아 UCC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5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을 연다. ‘역사 속 재외동포’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통일과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담아 1~3분 분량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과 재외동포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9월 18일까지 동영상을 내면 된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200만 원 등 상금과 상장을 준다.

문의는 전화(☎02-3415-0093)나 이메일(akw1011@okf.or.kr)로 하면 된다.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이민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